



부록

APPENDIX

1. 고성の特산물
Goseong Specialty
2. 고성의 주요관광지
Goseong foremost tourist attractions



쌀



고성쌀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에서 재배하여 일본의 천황 조차 즐겨 먹었다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고성평야의 옥토와 풍부한 강수량, 일조량에 힘입어 최고급 친환경 쌀을 생산합니다. 특히, 녹비식물인 자운영을 재배하여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땅심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공룡나라 고성 쌀은 찰기가 있고 탄력이 좋으며 맛과 씹히는 질감이 좋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아껴주는 농산물입니다. 특히 고성 공룡나라쌀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 6년 전국 쌀 대축제 및 소비촉진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등을 휩쓸어 그 우수한 품질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농민과 행정, 가공업체 등 혼연일체가 되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성쌀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감



고성의 친환경 농산물로 공룡나라 단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이야기 중에 '꽃감과 호랑이'라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은 옛 선인들에게도 대단히 인기 있는 과일이었고 남녀노소가 다 즐겨먹는 우리 고유의 과일이었습니다. 공룡나라 단감은 해안지방의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 화학 비료와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살아있는 토양에서 생산하여 열매가 크고 향이 좋으며 먹을 때 아삭아삭한 맛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으며 비타민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과 숙취해소,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농산품 중 하나인 방울토마토. 하지만 고성의 공룡나라 방울토마토는 다릅니다. 재배의 최적지인 점질토에서 재배하여 과육이 우수하고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납니다. 고성방울토마토는 무농약, 꿀벌 수정으로 재배하며 수확 즉시 공동선별, 출하하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농가 평균 15년 경력의 풍부한 경험과 재배 노하우로 재배하여 일본바이어의 높은 평가를 얻어 5년 연속 수출하고 있는 고성의 효자 농산물입니다.

고성의 특산품

참다래



세계시장에 내 놓아도 맛과 품질에서 제일을 자부하는 고성 공룡나라 참다래입니다.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자연농법을 바탕으로 생산한 공룡나라 참다래는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이 가득한 참다래를 생산하기 위해 자연에서 채취한 산야초와 천혜녹즙, 미네랄이 풍부한 해초류, 한방영양제등 자연에서 나는 40여 가지의 귀한 재료를 사용한 천연비료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자연약초인 너삼, 은행잎, 마늘, 녹차잎 등의 즙액을 활용하여 자연방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생산 기술의 축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과일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자연농법 재배로 생산된 고품질의 공룡나라 참다래는 비타민C, 철분, 저칼로리의 풍부한 영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자가 소비가격을 결정하는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버섯



맛과 향이 뛰어나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버섯입니다. 그중 공룡나라 새송이 버섯은 시설의 자동화와 공정재배, 친환경 재배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수적인 미량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고급식품으로 항암 작용과 동맥경화 방지,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버섯은 새송이 버섯으로 새송이 버섯은 느타리버섯보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효소기능을 도와주는 망간, 몰리브덴, 아연 등의 미량요소가 다른 채소보다 많고 채소류에는 없는 염산이 함유되어 있는 고급식품입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송이 버섯은 맛과 향기가 뛰어나고 다양하게 요리 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좋은 품목입니다.



딸기



봄 과일의 여왕 공룡나라 딸기. 탐스러운 빛깔만큼이나 달콤한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고성의 친환경 농산물 중 딸기만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 딸기 5-6개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가능하며,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 노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공룡나라 딸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식품이자 건강식품입니다.

풋고추



청정 고성에 자라는 고추는 풍부한 햇살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재배한 공룡나라 풋고추는 빛깔이 곱고 선명하며 매운맛과 단맛이 적당하고 신선한 향과 부드러운 과피와 좋은 저장성을 자랑합니다. 무공해로 자라는 고성의 풋고추는 비타민C의 보고이며 맛과 향이 풍부하여 각종 요리재료로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취나물



고성의 청정해역은 건강한 농산물의 원천입니다. 이 속에서 자라는 고성의 농산물중 공룡나라 취나물 또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청정 해역 한려수도의 맑은 환경에서 자라 그 향이 독특하며 진통, 현기증, 항암작용에 탁월한 한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쓴맛이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약용 성분이 강해 건강식으로도 좋은 친환경 식품인 공룡나라 취나물은 고성에 자라는 최고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고성의 특산품

애호박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성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에 호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웰빙, 고품질, 친환경 등 최근 농산물의 새로운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성 태극애호박. 생육기를 이용하여 시설 재배하는 신 농법 호박으로 농약으로부터 원천 차단되면서 안전하고 일정한 규격의 호박으로 생육되며 소비자를 지향하는 공동선별, 자동세척, 포장되고 있습니다.태극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 태극애호박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그 맛과 향이 뛰어 납니다.

화훼



고성의 화훼는 일조시간이 길고 수질이 좋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보다 화색이 월등한 고성 화훼는 전국 각지로 유통되어 고성의 향기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굴



고성의 굴은 미국 FDA 지정해역인 남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굴입니다. 5월부터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굴 유생을 받아 수중 또는 각 연안지선에서 채묘기로 조립 된 굴 껍질에 부착된 유생을 일정시간 햇빛 노출을 통하여 성장을 억제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단련장에서 단련된 중요 중 우량한 것을 선별하여 다시 25-30개씩(밀집도를 떨어뜨려 섭취양분을 증식) 조립하여 청정지역인 어장으로 이동하여 수면에 연승식으로 수하한 후 자연해수에서 일정 기간동안 성장 시킨 후 다 자란 굴을 채취하여 운반선박을 이용하여 가공공장으로 운반 후 박신공들이 박신을 통하여 싱싱한 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멸치



고성군 마른 멸치는 미국FDA(식품의약품관리청)가 승인한 고성군 자란만 청정해역에서 어획되는 무공해 자연식품으로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회분, 핵산, 그리고 타우린 및 칼슘의 함유량이 월등하여 성장기의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는 물론 건강생활을 지향하는 현대인에게 자연의 맛을 안겨주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고성한우



고성군은 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한우비육사업을 개발 발전시켜 한우공급기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푸른 산과 비옥한 들,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기소로 잘 개량된 한우를 밑소로 선정하여 거세비육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양관리로 근육 내 유백색의 지방을 잘 침착시킨 고기로 육질이 부드러우며 다즙성과 향미 등에서도 우수합니다.

고성녹용



상리·대가지역을 중심으로 꽃사슴을 주종으로 엘크, 레드디어 등 1,4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40여만 평의 목초지에 자연 방목으로 생산되는 사슴 엑기스 및 녹용은 천연 무공해 건강식품과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성의 주요 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11호)



하이먼 덕명리, 월흥리에 위치한 상족암군립공원은 해면의 넓은 암반과 기암절벽이 계곡을 형성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석보상족암과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의 발자국과 선녀탕, 촛대바위, 병풍바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어우러져 절경을 더하고 있다. 1982년 1월 하이먼 덕명리 해안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학회에 발표된 4,300여족과 관련학회 미확인 704족을 합하면 총 5004족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고생물학회의 기초학술조사과정에서 공룡알 화석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공룡나라" 라는 닉네임이 붙은 정도이며 중생대 백악기 고생물화석 산출지로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인기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당항포관광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선 57척을 격파시키고 승전고를 울린 당항포대첩을 길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관광지로 조성한 곳이다.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개관한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이충무공사당, 당항포해전관, 임진란 창의공신 현충탑, 전승기념탑과 수석전시관, 자연예술원, 공연장, 놀이시설 등이 있어 관광을 겸한 체험 학습의 장이다.

고성의 주요 관광지



고성공룡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은 상족암군립공원내에 고성의 대표적인 공룡 이구아나돈의 몸체를 형상화 하여 건립된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1,324m)의 규모에 공룡화석 등 총 169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광장에는 세계최대 높이(24m)의 공룡탑과 전망대 등이 있어 국제수준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고성 탈박물관



고성 탈박물관은 전시관, 야외 장승마당, 체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14개 단체의 무형문화재탈과 신성탈, 그림탈, 자연탈, 문자탈 등 각종 탈 및 장승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소박한 삶과 무속신앙을 잘 느낄 수 있다.

연화산도립공원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선유, 옥녀, 탄금 등 10여 개의 산봉우리가 심산유곡의 형상을 이루고, 계곡에는 청류옥수가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연화팔경의 절경지 등이 자연경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고성의 주요 관광지

옥천사 (경남전통사찰 제9호)



신라천년의 고찰인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서기 676)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화엄 10대 사찰로서 이곳에는 보물 제495호인 임자명반자, 지방문화재인 대웅전, 지방루, 향로, 대종 등이 있으며, 청련암, 백련암, 연대암 등 3개의 암자와 청담스님사리탑 등이 빼어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문수암 (경남전통사찰 제78호)



신라, 성덕왕5년 (706년) 의상조사가 창건하였으며, 산명이 수려하여 삼국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 유명하였고 화랑도 전성시대에 국선 화랑들이 이 산에서 심신을 연마하였다고 전해 진다. 특히, 한려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군상봉처럼 떠올라 있어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송학동 고분군 (사적 제119호)



6세기 전반경 축조된 소가야 왕릉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전 벽면에 붉은색 채색이 된 연도가 있는 횡렬식석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실 내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신라, 백제, 가야, 일본 형식의 다양한 토기가 출토 되었다.



운흥사 (경남전통사찰 제22호)



고성군 하이면 와룡산 향로봉(香爐峯) 중턱에 위치한 천년고찰 운흥사(雲興寺)는 1,300여전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신라고찰로서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인 쌍계사 50여 말사 중 산세와 규모가 비교적 큰 수말사에 속하고, 임진왜란때 승병의 본거지로서 사명대사의 지휘아래 6,000여 명의 승병이 머물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수륙양면 작전 논의차 세번이나 이곳을 왕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불가의 화원 양성소로 큰 역할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불화 중 가장 많은 걸작품을 남기고 있는 『의겸(義謙)』 등이 나왔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괘불탱화를 비롯하여 대웅전, 영산전, 명부전 목조각상, 목제원패, 경판 등 30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계승사 (경남전통사찰 제103호)



용 머리를 닮은 듯한 큰바위를 머리에 인채 조용히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는 영현면 대법리 금태산. 계승사는 신라 문무왕 15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로 『금태사』로 불리워 오다가 임진왜란때 병화에 의해 소실, 지난 63년 지금의 주지법진스님의 재 창건 불사에 의해 중건됐다. 산세가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유서가 깊어 많은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사는 절벽사이에서 솟아나고 있는 석간수로도 그 명성이 높다.